



국무조정실,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원인규명 작업 착수

- 교통 통제 미시행 등 관련 지자체 및 경찰·소방의 안전조치 내역 조사 예정

- 국무조정실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.
- 국무조정실은 우선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,
 - 사고 발생시간(15일 오전 8시40분)보다 1~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‘오송읍 주민 긴급대피’와 ‘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’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,
 - 그날 새벽 충북도·청주시·홍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·기초자치단체와 경찰·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.
- 특히,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·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,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.
-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,
 -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, 결과가 나오는데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고, △징계 △고발 △수사의뢰 △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민성호 (044-200-2742)
	공직복무관리관실	담당자	사무관	손소정 (044-200-2743)

